

2017년 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7.1.20(금) 14:00~15: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균형과 심층성 제고해야

- 큰 쟁점이 되는 일들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 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모은다.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면 대통령 탄핵에 큰 영향을 준다 등 뜨거운 쟁점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을 좁혀나가고 시청자(국민)들이 균형감 있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면 좋겠음(김상선 위원)
- 일부 신문·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연합뉴스TV는 중립성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됨. 대선후보 동향, 특검수사, 탄핵심판 등은 시청자들의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사안이고 대선정국을 앞두고 있어 균형적인 보도를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람(박동민 위원)
- 연합뉴스TV가 스트레이트뉴스 중심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기사전달시 문제점이거나 약간의 제언이 붙는다면 더 좋지 않나 함.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이 되어 여성들이 일하기 힘들다는 내용에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여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의미전달이 용이함(정현주 위원)

▲ 국제뉴스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의견

- 미국의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워싱턴 보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분위기를 전달해주었는데 한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국제정세에 대해 나누어서 짚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태식 위원장)
-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뉴스를 단편 보도로 끝내는 것보다 주말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해준다면 시청자들의 교양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태식 위원장)
- 정치 뉴스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 등 여타 분야의 뉴스 비중이 너무 적음. 트럼프 정부의 통상, 산업, 재정정책 등 글로벌경제의 이슈와 현안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도비중을 늘리고 전문가 대담도 필요함(박동민 위원)
- 대선국면 관련 뉴스에서 각 예비후보들의 말과 여러 이슈에 대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는데 뉴스로서 단순 전달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함. 이슈와 쟁점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점검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시청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태식 위원장)

- 대통령 퇴임과 관련된 한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 관련 중요한 프로그램을 한번으로 끝내는 것보다 당분간 이슈별로 짚어보고 전문가 진단과 함께 정리해 보면 시청에 도움 될 것(이태식 위원장)
- 새해에는 모두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출발을 하므로 국내 정세는 복잡하지만 서민들 중에서 역경을 딛고 살아가는 의지의 한국인들의 희망이 담긴 이야기를 발굴해서 주간이나 월간으로 종합시리즈로 전해준다면 시청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음(이태식 위원장)
- 종편의 '썰전'과 '외부자들'처럼 시사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음. 올해는 대선의 해인점을 감안해 연합뉴스TV에서도 단순한 뉴스 외에 새로운 방식의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면 어떨까 싶음(주철환 위원)
- 뉴스 진행시 앵커가 뉴스를 읽고 마이크를 넘겨서 아이টে이을 기자가 읽는데 스탠드업과 얼굴이 전혀 안 나와 굳이 기자가 읽어야 하나 앵커가 읽는 것이 낫지 않나 함. 현장감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므로 프로그램별로 이런 점에 대해 전략적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함(이재경 위원)

▲ 뉴스의 차별화 전략 고민해야

- 연합뉴스TV가 안정화 단계를 지나 도약단계로 나아가려면 황금 시간대에 메인 뉴스와 메인 앵커(개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 발탁은 어렵고 외부전문가 영입 필요)가 필요하므로 과감한 투자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이 요구됨(신현택 부위원장)
- 시간대별로 뉴스프로그램과 진행자는 달라지지만 내용의 차이는 없어 보임. 연합뉴스TV만의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브랜딩 작업이 필요함. 어느 시간대에 연합뉴스TV를 봐야하는지 낮 12시가 좋은지 저녁 7시가 좋은지 하는 뉴스배열 진행 방식의 특별함이 느껴지는 특성이 필요함(이재경 위원)
- 스트레이트 뉴스 중심의 장점은 있으나 타 방송과의 차이점은 현장 소리 없이 텍스트만 전달하는 진행방식임. 편집적으로는 부담스럽겠지만 매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몇 개의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함(이재경 위원)

▲ 뉴스진행 및 아나운서·특파원 개선 필요

- 아나운서들의 모습과 진행방향에서 중압감과 무게감이 떨어지고 박진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음. 시청자입장에서 그런 시각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기 바라며 개선을 위해 리포터 등 진행을 조금 더 알차게 했으면 함. 뉴스진행을 남녀 앵커가 나누어서 하면 앵커의 역할이 축소되는 감이 있음. 한 앵커가 처음부터 끝까지 소화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움(이태식 위원장)
- 중요한 시청시간대에 연합뉴스TV가 자랑할 만한 앵커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특화시켰으면 함(이태식 위원장)

- 앵커들이 자주 바뀌는 듯한 느낌. 아나운서들도 연합뉴스TV를 대표하는 아나운서들이 나올 수 있도록 특정 프로그램에는 잘 하는 아나운서들을 고정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만함(주철환 위원)
- 연합뉴스 해외 특파원들이 리포트하는 경우 스탠드업 영상 등을 보면 홈비디오 수준보다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음. 현장감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보도채널 1위라는 현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영상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파원들의 영상교육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아예 빼버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전체적인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인상(주철환 위원)

▲ 자막 등 기타 개선 의견

- 스크롤 형식이 바뀌었는데 기존과 달리 정리된 느낌이 강해짐.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음(주철환 위원)
- 발 빠른 현장 연결을 통해 시청자들이 직접 가볼 수 없는 현장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연합뉴스TV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함. 다만 현장연결시에도 과도한 빨간 자막 사용은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주철환 위원)
- 12월 19일 오후4시...정우택 발언 중 '건건이' 를 건건히로, 1월 5일 윤전추를 윤천주로 오타 발생, 1월 8일 10시50분 광고시간에 세계날씨가 잠깐 나오는 방송오류 발생(박동민 위원)
- 과도한 한자어 사용은 방송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짐. 문재인 대표를 文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潘으로 쓰는 것처럼 자막에 한자어가 많이 쓰이는데 한글로 표기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됨(주철환 위원)
- 이달부터 뉴스 BGM이 전반적으로 바뀌었는데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임. 음악을 좀 더 긴장감 있고 활기차게 바꿔주는 것도 좋을 듯함(주철환 위원)
- 이상기후 일상화로 날씨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상정보가 이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화면 우측하단에 환율, 주가정보가 상시 표시되는 것처럼 날씨정보를 스크롤로 노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상보도시 어제대비 기온차를 표기해 줬으면 좋겠음. 시청자들이 나들이 옷차림을 결정할 때 '어제보다 몇 도가 낮은지' 궁금해 할 것임. 나들이 지수, 세차지수, 불조심 지수처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 되는 다양한 생활지수 개발도 필요함(박동민 위원)
- . (끝)